이 추위에… 바다서 90분간 사투

26일 오전 9시께 신안군 만재도 남쪽 12.8㎞ 해상에서 침몰 된 '항로페리 2호' 승객 15명이 목포해경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신안 만재도 남쪽 해상에서 화물선 뒤집혀
선원·승객 15명 배 밑바닥 매달려 "SOS"
목포해경 3009함 출동 극적으로 전원 구조

■화물선 침몰 장소

타고 있는 배가 바다로 가라앉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겪어보지않으면 알 수 없을 것이다. 서서히 침몰해가는 배에서 15명이 죽음의 공포에 떨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영화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신안 가거도항을 출항한 목포 선적 495t급 화물선 '항로페리 2호'(선장 김상용·60·목포시 옥암동)가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남쪽 12.8㎞ 해상을 지나던 시각은 26일 오전 9시께.

당시 이곳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파고가 최고 4.8m 이상 일만큼 악천후였다. 출발 후 1시간 30여분이 지날 무렵, 여객실에는 방학을 맞아 목포로 향하던 신안 가거도 중학교 교사 6명과 중학생 1명 등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조타실에는 선장과 항해사, 갑판에는 선원 2명, 화물실에는 화물차주 4명이 타고 있었고 24t 화물차 1대·5t 화물차 3대도 실려 있었다.

높은 파도 때문에 조금은 걱정됐지만 무난하게 항해하던 중 갑자기 화물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3~4분 뒤 또다시 '쿵~쾅' 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조민우(15·가거도중 2년)군은 화물실로 향했고 교사들도 뒤따랐다. 이들이 화물실에 도착했을 땐 좌측 선체는 이미 15도 가량 기울어진 상태였다.

이날 사고는 화물차가 흔들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화물실에 실린 차량을 고정시킨 밧줄이 풀리면서 일어났다. 화물차가 한 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조군은 "배가 뭔가에 부딪힌 줄 알고 화물 칸으로 가봤더니, 배가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포가 닥치자 화물선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는 배를 삼켜버릴 기세였다. 사고 발생 15분이 지난 오전 9시15분께. 선장 김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목포해경에 "배가 침몰 중이니 빨리 구조해달라"고 무전을 날렸다.

천만다행으로 가거도 북동쪽 9.1㎞ 해상에서 불법어로 단속중이었던 목포해경 경비정 '3009함'(함장 김문홍)이 위기를 직감하고 페리 2호를 향해 질주했다.

그 사이 사고현장은 더욱 긴박해졌다. 경비정이 접근하는 동안 화물선 밑바닥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자 승객 7명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다 속으로 몸을 던졌다. 나머지는 뒤집힌 화물선의 밑바닥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마침내 구조요청 후 30분만인 오전 9시45분께 3009함이 도착했다. 3009함은 파도가 높아질까봐 1.2t급 고속단정을 사고 선박에 접근시켰고 30여분 만에 15명 전원을 구조하는 개가를 올렸다. 승객들 모두는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화물선은 일반 승객은 13명까지 태울 수 있고 악천후 운항통제를 받는 선박은 아니다. 차량적재시 제대로 밧줄을 묶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홍 함장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선체가 50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였다. 승객·선원 전원이 무사히 구조돼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시동 켜진 차 훔쳐 물건 훔치고 버려

광주서부경찰은 26일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친 한모(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6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마트 앞에 주차돼 있던 김모(35)씨의 아우디 승용차를 훔치는 등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총 16대의 고급 승용차와 금품 등 5억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택시기사인 한씨는 차량 내에 보관돼 있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만 몰래 타고 달아난 뒤 길거리에 버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바가지 청자' 의혹 재수사
강진 주민들 '뒤숭숭'

"군 차원 진상조사 벌여야"

검찰이 감사원 의뢰로 강진군의 '바가지 청자' 매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광주일보 12월 25일 3면〉이 전해지자 강진 지역이 뒤숭숭하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허술한 행정때문에 엄청난 혈세가 새나갔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지난 1년여동안 '바가지 청자' 매입 책임론에 시달렸던 강진군은 아직 구체적인 수사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수사의뢰와 검찰의 조사 착수 보도 이후 강진자치참여연대(대표 김민균)는 26일 10배나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청자상감 모란국화 연화문 과형주자' 구매 관련 서류와 당시 감정서 등을 강진군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에야 말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며 "감사원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뭔가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감사원의 주장대로 감정위원이 돈을 받고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부풀렸다면 관계자 처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군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박모(55·강진읍 남성리)씨는 "'10억원의 혈세로 구입한 고려청자가 실제로는 1억원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군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강진군은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특히 강진군은 이미 한 차례 검찰의 수사 결과 고려 청자 감정 및 구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혹시 비위가 있었더라도 개인간의 문제일 뿐 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바가지 청자' 의혹은 강진군이 지난 2007년 10억원에 매입한 고려청자에 대해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감정위원과 소장자 간 친분관계로 감정가가 10배 가량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으며, 최근 감사원이 이들간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입주민 소유권 제한 송전선 철거해야

광주지법 판결

송전선이 설치된 후에 아파트가 신축됐더라도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소유권을 제한받고 있다면 송전선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철의)는 광주시 동구 운림동 글로벌아파트 입주민 72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압송전선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송전선 설치 후 들어선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해서 선하지(線下地)에 대한 소유권 행사 제한을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송전선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전선으로 인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의 소유권이 제한받고 있고, 송전선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아파트 입주민들은 광주 계림~남광주간 송전선 가운데 50m가 아파트 상공을 지나고 있어 이로 인해 송전선 아래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받고, 전자파의 유해성이 우려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한전 측은 원고들이 송전선 설치 후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점과 지난해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임대료 명목으로 29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까지 맺은 점 등을 들어 선하지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가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대리권한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운찬 〈8205〉 김종두

보성녹차캔 유사품 업체 법원, 12억원 배상 판결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6일 보성녹차 영농조합법인이 차(茶) 제조업체인 T사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T사와 B사는 각각 8억원,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성녹차법인은 T사와 B사가 '보성녹차'라는 명칭에 비슷한 외관의 캔음료를 판매하거나 OEM으로 납품하자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부정경쟁 행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점 100 고스톱 1000원 놓고 주먹질

쌍나팔

○…점당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치며 시간을 보내던 50대 남성 2명이 1000원을 두고 몸싸움을 벌여 나란히 경찰서행.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 이모(52)씨와 최모(58)씨는 지난 25일 광주시 서구 이씨의 고물상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시비를 벌이다 서로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이날 고스톱을 치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뒤 자신의 돈 1000원이 사라진 것을 두고 이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 1월 3일